

제14차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여학생회장	체육부장	국어국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한정빈	문태석	-	-	백주오	정유승
0	0	공석	공석	0	0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김승호	김자은	정지수	윤상준	김한비	한승기
0	0	0	X	0	0

총원	10	결원	1	현원	9	서기	류하연
----	----	----	---	----	---	----	-----

참관인: 국어국문학과 장원준, 불어불문학과 이태규, 사학과 박지완, 철학과 곽길재, 영어영문학과 곽승학, 독일언어문학과 강인서, 철학과 이세진, 중어중문학과 전유라

1. 활동 보고

<인문대학 학생회>

07/10

- 인문대학 학생회 제2차 체전 TF 회의

07/12

- 제22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07/14

- 인문대학 굿즈 디자인 공모전 카드뉴스 업로드

07/21

- 제23차 인문대학 학생회 집행부 회의
-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카드뉴스 업로드

07/22

- 인문대학 상반기 정기 감사 자료 제출
- 경영대학X인문대학X사범대학 연합축제 팀장 회의

<국어국문학과>

- 보고 없음

<독일언어문학과>

- 보고 없음

<불어불문학과>

- 보고 없음

<사학과>

07/13

- 방학 중 사물함 연장 신청 및 정리 공지

07/17

- 사학과 학생회 회의

<영어영문학과>

- 보고 없음

<일어일문학과>

- 보고 없음

<중어중문학과>

- 보고 없음

<철학과>

- 보고 없음

<활동 보고 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

Q1. 사학과 회장: 연합축제 말고 야시장도 진행하나?

A1. 인문대 회장: 연합축제는 원래 10월 8일 예정이었는데 총축제가 10월 6일~10월 7일이 유력하다고 해 연합축제 TF 회의에서 총축제 뒤에 하는 건 스케일이나 다른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전으로 일정을 옮길 예정이다. 현재 9월 28일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 날짜로 진행할 예정이다.

Q2. 사학과 회장: 야시장은 11월에 진행하나?

A2. 인문대 회장: 그렇다. 야시장은 사학인의 날 등과 비슷하게 맞춰서 진행할 것 같다.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 TF 창설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Q3. 인문대 회장: 그리고 원래 이 회의는 발언권이 회장들에게만 있다. 하지만 체육부장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참석을 부탁했으니 발언 전에 어느 과 체육부장인지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 또한 회장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체육부장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데 다들 동의하시나?

A3. 사학과 회장: 동의한다.

1-2. 개별 보고

- 보고 내용 없음

2. 심의 및 의결 안건

- 심의 및 의결 안건 없음

3. 논의 안건

1. 체전 룰북 피드백

가. 공지사항

- 1) 예전에 쓰던 룰북을 토대로 올해 바뀐 예선전의 형태를 고려해서 인문대학 학생회에
서 룰북을 다시 작성함
- 2) 빨간 글씨로 표시해 둔 부분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축구 관련 논의

- 1) 영문과 부회장: 오프사이드를 판정에서 주심보다 부심이 더 잘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후 주장의 항의가 있을 때에는 주심과 부
심이 논의 후에 원심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2) 인문대 회장: 주심이 진행 후에 바로 넘어가는데 상황이 끝나더라도 부심과의 논의
를 통해 바꾸자라는 말인가?
- 3) 영문과 부회장: 그런 논란이 있는 판정이 생겼을 때 양팀의 주장이 심판에게 요청을
하면 주심과 부심의 상의를 통해 원심을 번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 4) 인문대 회장: 그러면 그 즉시 경기는 중단해야 하는 건가?
- 5) 영문과 부회장: 그렇다.
- 6) 인문대 회장: 그거에 관련되어서 14번이 비슷한 내용이다. 말씀하신 것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 다 같이 한 번 더 이야
기해 봐야 할 것 같다.
- 7) 철학과 체육부장: 와일드카드에 휴학생도 포함인가?
- 8) 인문대 회장: 인문대학 회칙에 따르면 휴학생은 재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와일
드카드 처리를 하지 않는다. 와일드카드에는 졸업생, 졸업유보생 등
만 포함된다.
- 9) 인문대 회장: 5번 마지막 부분에 승부차기 진행 전 골키퍼 교체는 가능하나 승부차
기 진행 중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조항과 승부차기 준비 시간 3분을 부
여한다는 조항에 연장전 10분 이후에 하는 3분의 휴식 시간이고 그 이
후에 승부차기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골키퍼 교체는 선수 교체에 제
한이 없기 때문에 골키퍼 교체가 가능하더라는 조항도 넣어됐다. 휴
식 시간 3분 충분한가?
- 10) 영문과 부회장: 충분할 것 같다.
- 11) 인문대 회장: 와일드카드가 현재 최대 1명으로 되어 있다. 혹시 수정하고 싶으신
과 있나? 교수님이나 조교님은 재학생으로 인정되니까 참여를 원하
시면 참여 가능하다. 졸업생이나 졸업유보생, 수료생들만 와일드카
드로 최대 1명 가능하다. 인원 추가하거나 없애자는 의견 있나?

- 12) 국문과 체육부장: 한 명이 좋을 것 같다.
- 13) 인문대 회장: 그러면 한 명으로 확정하겠다. 다음은 13번 조항이다. 주심과 부심의 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이다. 이때 따른다는 항의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따르고 심판도 학생이거나 외부 심판을 섭외해도 같은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자는 의도로 작성한 규칙이다. 사실 따른다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표현이 좋을까?
- 14) 사학과 회장: 수용한다는 표현은 어떤가?
- 15) 영문과 부회장: 존중한다는 표현도 좋을 것 같다.
- 16) 인문대 회장: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가?
- 17) 사학과 체육부장: 아니면 주심과 부심의 정당한 판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가?
- 18) 인문대 회장: 그러면 그렇게 작성하고 아까 영문과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주심의 판정에 선수들의 항의한다면 주심과 부심의 논의를 통해 원심을 번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건 어떤가?
- 19) 불문과 체육부장: 좋다.
- 20) 사학과 회장: 그러면 항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나?
- 21) 인문대 회장: 룰북 10번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 한 명과 대표자 한 명이 항의할 수 있다. 대표자 한 명은 학과 내에서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14번에 결정한다 뒤에 주심의 판정에 학생들의 항의가 있을 경우 부심과의 논의를 통해 원심을 번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하겠다.
- 22) 독문과 회장: 14번 조항에 주심만 들어가 있는데 부심도 넣어주면 좋겠다.
- 23) 인문대 회장: 알겠다. 오프사이드는 전반적인 규칙이라 말씀을 드린다. 예선전 때는 학생회에서 볼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심판을 볼 수도 있는데 모두가 같은 범주의 축구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범주의 과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파란 글씨로 작성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들 수용하나? 규칙으로 확정하고 넣어도 되겠나?
- 24) 사학과 체육부장: 넣어도 된다.
- 25) 인문대 회장: 다음으로 넘어가서 16번도 발이 높거나 이 조항도 실제 축구 규칙에서 가지고 왔다. 다리가 높을 경우 머리카락이 다칠 수 있어서 위험하다 판단하여 추가하였다. 이 조항은 즉시적으로 레드카드가 나올 경우를 말하는 거다. 다들 괜찮은가?
- 26) 사학과 체육부장: 발이 높아서 맞으면 레드카드가 나올 수 있지만 맞지 않으면 구두 경고나 옐로카드도 넘어가는 건 어떤가?
- 27) 인문대 회장: 그럴 것 같아서 재량 하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그러면 이 단어를 빼고 발이 높아서 신체에 닿을 경우라고 명시하는 게 좋은가?
- 28) 영문과 부회장: 이건 대학교 내에서 하는 경기니까 발이 닿지 않아도 위험성이 있으면 레드카드를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 29) 인문대 회장: 영문과는 별도의 수정 없이 지금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사학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나?

- 30) 사학과 체육부장: 재량 하에라는 단어가 있으면 발이 높으면 무조건 레드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재량 하에 말고 심판이 판단 해서 레드카드를 줬으면 좋겠다.
- 31) 인문대 회장: 그럼 영문과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른과는 이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다. 20번에 심판이 보았을 때라는 것은 심판의 재량으로 넘어간다는 거다. 사실 심판이 뒤에서 일어난 상황까지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심판이 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건데 괜찮은가?
- 32) 영문과 부회장: 괜찮다.
- 33) 인문대 회장: 심판이 보지 못할 때 심각하게 싸움을 하고 있으면 즉시 심판에게 알려달라. 가급적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회장님들이나 체육부장님들이 미리 신경써달라. 21번 조항, 선수가 쌍방 욕설을 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옐로카드를 부여한다는 거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
- 34) 사학과 체육부장: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혹시 벤치에서 심판의 판정에 대한 욕설을 크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그것도 심판의 재량에 따라 벤치에 있는 예비 선수나 다른 인원까지 영향이 가는지 궁금하다.
- 35) 인문대 회장: 욕설을 듣는 대상이 확실한 경우에 그 욕설을 한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욕설이 들린다면 레드카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욕설을 한 사람이 경기장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축구 종목이기 때문에 축구 종목 안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 36) 영문과 부회장: 경기장 밖 인원의 욕설이 3회 이상이라면 기권 처리는 어떤가?
- 37) 사학과 체육부장: 몰수패도 좋을 것 같다.
- 38) 국문과 체육부장: 2회까지로 제한해도 좋을 것 같다.
- 39) 인문대 회장: 그러면 2회 이상 몰수패로 가도 괜찮은가?
- 40) 독문과 회장: 기준이 모호할 것 같다.
- 41) 사학과 체육부장: 예비 선수가 아니면 최대한 경고를 주고 교체 선수이면 바로 카드를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 42) 인문대 회장: 교체 선수가 욕설을 할 경우 옐로카드를 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하면 레드카드를 주고 교체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은 괜찮은가?
- 43) 독문과 회장: 욕설을 상대 선수가 들어서 전달했을 때인지 심판이 직접 들었을 때인지 모르겠다.
- 44) 인문대 회장: 그건 심판이 직접 들었을 때다. 그러면 19번에도 경기장 밖에 있는 선수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
- 45) 독문과 회장: 만약에 벤치에 있는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으면 그 선수만 못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필드에서 10명으로 뛰어야 하는 건가?
- 46) 인문대 회장: 해당 선수만 그날 그 경기가 아예 참여 불가하다. 그래서 필드 안에 있는 선수는 11명 유지해도 된다. 그리고 원래 있던 룰 중에 옐로카

드가 2장이거나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경기를 출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예선을 한 경기씩만 하기 때문에 삭제했다, 괜찮은가?

- 47) 사학과 체육부장: 그러면 11번도 의미가 없는 조항 아닌가?
- 48) 인문대 회장: 레드카드 받으면 다음 경기 출전을 못 하게 하자라는 것과 11번 조항을 빼는 것 중에 어떤 게 나은가? 학생회에서는 다음 경기 출전도 막자는 의견이 나왔다.
- 49) 사학과 체육부장: 그냥 그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 50) 인문대 회장: 16번 조항 뒤에 이 내용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다.
- 51) 국문과 회장: 그러면 옐로카드가 다음 경기로 넘어가지는 않나?
- 52) 인문대 회장: 그건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체전 본선에서는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선전에서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 53) 독문과 회장: 예선전까지 넘어가게 하면 심판의 판정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다.
- 54) 인문대 회장: 그럼 예선전에서 받은 옐로카드는 본선에서 초기화하자는 건가?
- 55) 독문과 회장: 전문 심판도 아니고 학생들이 심판을 보는데 만약에 예선전 카드가 본선까지 넘어간다면 어떻게든 항의해서 번복시키려고 할 것 같다.
- 56) 사학과 체육부장: 레드카드는 본선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옐로카드는 초기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57) 인문대 회장: 다들 같은 의견인가? 본선에선 월요일에 받은 옐로카드가 화요일로 넘어가는 건 괜찮은가? 본선 주심은 체육교육과나 심판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로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 58) 영문과 부회장: 예선전에서 하지 않을 거면 본선에서도 하지 않는 게 나올 것 같다.
- 59) 인문대 회장: 그러면 옐로카드 목적은 그 경기 내에서 조심해라 정도의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 60) 독문과 회장: 그래야 심판도 조금 덜 부담될 것 같다.
- 61) 인문대 회장: 그럼 카드와 관련한 내용 17번 뒤에 추가하겠다. 혹시 축구 관련 피드백 더 있나?
- 62) 영문과 부회장: 없다.

다. 소프트볼 관련 논의

- 1) 국문과 회장: 투수 보크와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좋겠다.
- 2) 인문대 회장: 투수 보크를 어떻게 명시하면 좋겠나?
- 3) 국문과 체육부장: 13번 조항을 보면 한 발이 베이스에 있어야 한다 등과 같이 아래쪽에 19번 아래에 주자가 있을 시에 주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 4) 사학과 체육부장: 소프트볼 19번 조항을 보면 최대 2루 진루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괄호에 3루타 불가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타자가 3루타가 불가능한 건지 주자로 나가 있는 선수는 2루 이상 진루 가능한 건지 헷갈린다.
- 5) 인문대 회장: 모든 주자를 최대 진루를 2루까지 제한한다라는 항목 추가하겠다.

- 6) 인문대학 회장: 콜드게임은 예전에만 적용하고 본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팬찮은가?
- 7) 사학과 체육부장: 예전에는 결승만 없고 4강까지는 콜드게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뀐 건가?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 8) 인문대 회장: 바뀐 것은 아니다. 예전에도 본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른과는 결승만 제외하고 4강까지는 콜드게임 유지하자는 의견 어떤가?
- 9) 독문과 회장: 경기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콜드게임 없애도 되지 않나?
- 10) 인문대 회장: 독문과는 4강도 콜드게임을 없애고 예선전에만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 11) 불문과 체육부장: 불문과도 같은 의견이다.
- 12) 중문과 회장: 중문과도 같은 의견이다.
- 13) 영문과 부회장: 영문과도 같다.
- 14) 인문대 회장: 독문과와 다 같은 의견이면 과반수 이상이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4강도 콜드게임 없는 것으로 확정하겠다. 다음은 13번이다. 야구 규칙에서는 리드를 제지하는 규칙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1회 경고, 2회 아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소프트볼은 전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경기가 루즈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2번까지만 해서 아웃하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15) 독문과 회장: 팬찮은 것 같다.
- 16) 인문대 회장: 그러면 타자가 공을 칠 때까지 한 발은 무조건 베이스에 붙여야 하고 타자가 공을 치기 전에 발을 떼면 한 번은 경고하고 두 번째에는 아웃으로 확정하겠다. 14번 와일드카드 규칙은 축구와 똑같이 조교님과 교수님은 재학생으로 출전 가능하고 대학원생, 졸업생, 수료생 등은 와일드카드로만 참여 가능하다. 혹시 이것도 변동이 필요한가?
- 17) 불문과 비대위원장: 변동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 18) 인문대 회장: 투수 보크에 관해서 국문과에서 이야기했던 게 주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가였는데 국문과는 주자도 진루하자는 의견인가?
- 19) 국문과 체육부장: 그렇다.
- 20) 인문대 회장: 다른 과도 이 의견 팬찮나?
- 21) 독문과 회장: 주자가 2루에 있어도 3루로 가고 3루에 있으면 홈으로 들어오는 건가?
- 22) 인문대 회장: 무조건 1회 안전 진루를 말하는 건가?
- 23) 국문과 체육부장: 그렇다. 경고를 1회 주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보크 선언 후 주자에게도 안전 진루를 하는 걸 말했었다.
- 24) 사학과 체육부장: 그러면 경고라는 게 한 타자에 의해서 경고 2회일 때 진루라는 건지 아니면 전 경기에서 2회 경고이면 진루하는 건지 궁금하다.
- 25) 국문과 체육부장: 전 경기에서 2회 경고일 때 주자로 진루하는 것이다. 투수에게 처음 경고를 주고 그 투수가 계속 던지는 중에는 두 번째부터 계속 진루권을 주는 것이다.
- 26) 인문대 회장: 그러면 투수가 교체되면 경고는 다시 0회가 되는가?

- 27) 국문과 체육부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 했다.
- 28) 불문과 비대위원장: 보크는 주자가 있고 주자가 도루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하는 건데 주자가 도루를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왜 보크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볼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 29) 인문대 회장: 그러면 불문과에서는 도루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인가?
- 30) 불문과 비대위원장: 그렇다.
- 31) 인문대 회장: 알겠다. 그럼 지금 보크에 대해 나온 의견 두 개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 회의에서 투표는 회장님들만 가능하다. 회장님들은 의견을 체육부장님들과 이야기해서 투표해 달라.
- 32) 거수 투표 결과
가) 경고 2회부터 주자에게도 안전 진루권을 주자: 0
나) 타자에게만 볼을 주자: 8
- 33) 인문대 회장: 거수 투표 결과에 따라 투수 보크 시에 타자에게만 볼을 주는 것으로 확정하겠다. 혹시 더 추가할 내용 있나?
- 34) 불문과 체육부장: 번트 금지 추가해 주면 좋겠다. 작년에 봤을 때는 소프트볼에서 번트를 대면 주자가 전부 세이프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 35) 인문대 회장: 번트를 금지한다는 게 번트 자세를 제한하자는 의견인가? 그러면 배트를 휘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건 어떤가?
- 36) 불문과 비대위원장: 배트를 휘두를 때 어깨 뒤에서 나온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 37) 인문대 회장: 그러면 타자는 타격을 할 때 배트를 어깨 뒤에서부터 휘둘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번에 추가하도록 하겠다.
- 38) 사학과 회장: 콜드게임을 안 해서 경기가 예상 시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
- 39) 불문과 체육부장: 점수 차이가 나면 양 팀이 합의 하에 콜드게임을 선언하면 된다. 하지만 동점인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40) 인문대 회장: 소프트볼 딜레이가 되면 뒤에 있는 경기들이 전부 영향을 받는 건 맞아서 확실히 논의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41) 사학과 체육부장: 점수 차가 클 경우에는 양 팀 합의 하에 콜드게임을 하고 5회가 끝났는데 동점이라면 승부치기를 진행하는 건 어떤가?
- 42) 인문대 회장: 5회가 끝났는데도 동점이라면 그다음 이닝에서 승부치기를 진행하는 건 괜찮은가?
- 43) 국문과 회장: 그렇다.
- 44) 인문대 회장: 3회 정도까지 진행되었는데 경기가 접전이고 시간이 모자란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나?
- 45) 사학과 체육부장: 그럴 때에는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 46) 인문대 회장: 그럼 시간이 딜레이가 되어도 계속 경기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 47) 불문과 비대위원장: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의 중앙선을 넘으면 무조건 진루해야 한

다는 규칙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48) 인문대 회장: 그게 몇 번 규칙과 관련된 내용인가?

49) 불문과 비대위원장: 현재 룰북에는 없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

50) 인문대 회장: 오버라인 관련 규칙이 3번인데 지금 3번 규칙 앞에 추가하는 건 어떤가?

51) 불문과 비대위원장: 좋다. 오버라인 시에는 무조건 진루해야 한다고 명시해 달라.

52) 인문대 회장: 루와 루 사이를 절반 이상 지나쳤을 때는 무조건 진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오버라인으로 명명한다고 추가하겠다. 이에 대해 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항의할 시에는 퇴장한다고 추가하겠다. 현재 4번에 오버라인에 대해 명명되어 있어서 4번의 괄호 내용을 빼고 3번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겠다.

라. 족구 관련 논의

1) 인문대 회장: 7번 서브는 라인 밖에서 가능하고 그 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은 라인 안에서 서브하는 것은 제지하고 그 외에는 제지하지 않겠다는 건데 서브 방식 등 추가로 제지해야 할 게 있나?

2) 독문과 회장: 없다.

3) 인문대 회장: 그럼 서브 관련 내용은 이대로 진행하겠다. 와일드카드도 전에 논의한 종목들과 같은 내용이니 이대로 진행하겠다. 혹시 무릎 아래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괜찮은가?

4) 사학과 체육부장: 허벅지도 안 되는 건가?

5) 인문대 회장: 그렇다. 허벅지뿐만 아니라 어깨 등도 안 된다. 머리로 공을 넘기는 건 괜찮다. 이렇게 확정해도 괜찮나?

6) 사학과 체육부장: 괜찮다.

마. 농구 관련 논의

1) 인문대 회장: 팀 반칙에 관해서 팀 반칙은 5개로 제한한다는 건 어떤가? 일단 9번 내용부터 논의하겠다. 심판은 학생회가 아닌 농구 동아리에게 부탁할 예정이다. 농구도 축구와 비슷하게 승부욕을 가지고 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보다 정당한 판정을 위해 중앙 농구 동아리에 부탁해 진행할 예정이다. 괜찮은가?

2) 불문과 체육부장: 괜찮다.

3) 인문대 회장: 그러면 팀 반칙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 팀 반칙 5개는 괜찮은가?

4) 국문과 회장: 보통 팀 반칙 5개면 자유투를 주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규칙이 없는 건가?

5) 인문대 문화국장: 팀 반칙 5개면 그다음 반칙부터는 무조건 자유투가 2개씩 주어진다.

6) 인문대 회장: 쿼터 당 팀 반칙 5개 이후의 반칙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팀 반칙 개수는 쿼터마다 초기화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겠다.

바. 발야구 관련 논의

- 1) 인문대 회장: 소프트볼과 같은 내용인데 콜드게임 관련된 내용이다. 결승에도 콜드게임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 변경할 부분 있나? 없다면 결승에도 콜드게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5번은 4번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6번의 B를 보겠다. 수비수가 공격자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모든 주자에게 1루 진루를 하게 하는 건데 1루 진루가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 물어보고 싶었다.
- 2) 사학과 체육부장: 1루 진루는 좋으나 모든 주자 1루가 모든 주자가 1루씩 진루하는 건지 방해를 받은 주자만 1루 진루해서 밀어내는 건지 궁금하다.
- 3) 인문대 회장: 모든 주자가 진루하는 게 지금의 내용이다. 만약 3루와 홈 사이에서 방해가 발생했다면 3루에 있던 주자와 1루, 2루에 있던 주자 모두 1루씩 진루한다는 게 지금 내용이다.
- 4) 사학과 체육부장: 만약 홈과 1루 사이에서 방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원래 1루에 있던 주자와 2루, 3루에 있던 주자 모두가 1루씩 진루하는 건 당연하지만 1루와 3루에만 주자가 있고 3루와 홈 사이에서 방해가 발생한다면 1루에 있는 주자도 2루로 진루하는지가 궁금하다.
- 5) 인문대 문화국장: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그런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 애매할 것 같아 추가로 논의해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6) 사학과 체육부장: 진루에 대해 방해 동작에 영향을 받은 주자만 진루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주자가 진루하는 건지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다.
- 7) 인문대 회장: 그럼 모든 주자의 진루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괜찮은가?
- 8) 사학과 체육부장: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 9) 인문대 회장: 방해 동작을 당한 당사자만 진루하는지 모든 주자가 진루하는지 말하는 건가?
- 10) 사학과 체육부장: 인문대 측에서 정확히 정해주면 그거에 대해 투표하고 싶다.
- 11) 인문대 문화국장: 저희는 그 방해 동작과 관련 있는 주자들만 진루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 12) 불문과 비대위원장: 그런 상황은 볼데드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주자가 진루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 13) 사학과 체육부장: 그러면 볼데드가 아닌 상황에서는 애매해지고 그것에 대해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단순히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비를 하다가 멈춰서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볼데드가 아닌 경우라 또 따로 명시를 해야 한다.
- 14) 인문대 회장: 방금 불문과는 볼데드인 상황에서는 모든 주자가 진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사학과는 볼데드가 아닌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따로 명시하자는 건가?
- 15) 사학과 체육부장: 볼데드인 상황에는 모든 주자가 진루하는 것에 동의하나 볼데드가 아닌데 수비수가 방해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주자만 진루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 16) 인문대 회장: 원래 저희는 볼데드와 무관하게 방해가 발생하면 모든 주자의 진루를 생각하긴 했다. 하지만 들어봤을 때 사학과 의견도 좋은 것 같아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한다. 볼데드와 무관하게 모든 주자를 진루시키자는 게 1번이고 볼데드인 경우에는 모든 주자 진루를 보장하고 아닌 경우 방해를 받은 당사자만 진루하자는 의견이 2번이다.
- 17) 거수 투표 결과
가) 볼데드와 무관하게 방해 발생 시 모든 주자를 진루시키자: 0
나) 볼데드인 경우에는 모든 주자를 진루시키고 아닌 경우 방해를 받은 당사자만 진루시키자: 8
- 18) 인문대 회장: 다음은 와일드카드 내용이다. 발야구는 와일드카드가 2명이다. 이견 괜찮은가?
- 19) 불문과 체육부장: 발야구도 1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20) 인문대 회장: 1명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는 1명으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다. 다음은 투수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투수 없이 진행한다는 건 가운데 공을 두고 공이 정지된 채 찬다는 의미이다. 만약 투수가 있게 진행한다면 거리를 두고 공을 굴러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어떤 게 더 좋은가?
- 21) 사학과 체육부장: 사학과는 투수 없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22) 인문대 회장: 다른과는 어떤가?
- 23) 국문과 회장: 저희도 같은 생각이다.
- 24) 인문대 회장: 그러면 투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겠다. 15번과 16번은 운동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빨간 글씨로 작성해 둔 것이다. 스포츠 센터나 학교 측에서 운동장에 송진 가루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지금 내용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식을 찾아서 알려드리겠다.
- 25) 사학과 체육부장: 3루에서 홈으로 주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수비팀이 홈에서 공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루에서처럼 수비수가 공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이 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아웃이 되는지 궁금하다.
- 26) 인문대 회장: 구역 안에 공이 먼저 들어오면 아웃이 된다. 규칙에 추가로 명시해 두겠다.
- 27) 사학과 회장: 지정번호 키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 28) 사학과 체육부장: 예전에 헛갈려서 순서가 바뀌었던 적이 있다. 5번에 쳐야 하는 타자가 4번에 쳤었다. 혹시 페널티가 있나?
- 29) 인문대 회장: 페널티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떤 페널티가 좋을까?
- 30) 사학과 체육부장: 만약 페널티가 안 된다면 경기 시작 전에 1번부터 9번까지 적어 두고 심판이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31) 인문대 회장: 그러면 저희가 1번부터 9번 명단 확인한 뒤 순서에 맞춰서 이름을 부르는 게 낫겠나?
- 32) 사학과 체육부장: 그렇다.
- 33) 사학과 회장: 확인할 때 여학우들이라 심판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34) 인문대 회장: 경기 시작 전에 말해 달라는 건가?
- 35) 사학과 회장: 그렇다. 체육부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36) 인문대 회장: 알겠다. 그러면 체육부장님들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심판도 경기 시작 전에 이야기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다. 만약 그랬는데도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 페널티는 어떻게 하나?
- 37) 사학과 체육부장: 아웃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 38) 인문대 회장: 그러면 만약 4번이 쳐야 하는 상황에서 5번이 잘못 쳤다면 1 아웃이 되는 건가?
- 39) 사학과 체육부장: 그렇다.
- 40) 인문대 회장: 그러면 그다음 이닝에서는 6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가?
- 41) 사학과 체육부장: 원래 4번 차례였으니 5번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42) 인문대 회장: 그렇게 해도 괜찮나?
- 43) 국문과 회장: 그렇다.
- 44) 인문대 회장: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차례에서는 아웃 처리하고 다음 이닝에서는 원래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내용 추가하겠다.

사. 피구 관련 논의

- 1) 인문대 회장: 피구도 와일드카드 1명으로 수정하는 게 나은가?
- 2) 불문과 체육부장: 그렇다.
- 3) 인문대 회장: 피구도 1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다. 시간 관련해서 15번 규칙에 15분씩 진행이고 남은 인원이 더 많은 쪽이 승리한다는 내용인데 수정할 부분 있나?
- 4) 불문과 체육부장: 없다.
- 5) 인문대 회장: 피구는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임 15분씩 총 45분 소요된다. 변동할 부분 없으면 확정 짓겠다.
- 6) 사학과 체육부장: 7번 규칙에 머리에 맞는 것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 7) 인문대 회장: 공이 오는 것에 머리를 가져다 대는 것은 던진 사람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 8) 사학과 회장: 그렇다면 고의성 부분에 주체를 명시해 줘야 할 것 같다.
- 9) 인문대 회장: 공이 오는 것에 고의적으로 머리를 대는 것은 아웃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
- 10) 국문과 체육부장: 공을 맞은 후 바운드 없이 다른 팀원이 공을 잡았다면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 11) 인문대 회장: 세이프로 판단하고 팀원이 공을 맞은 상태에서 그 공을 바운드 없이 같은 팀원이 잡았다면 노아웃 처리한다는 내용 추가하겠다.

아. PK 부분 논의

- 1) 인문대 회장: 원래 PK는 종목을 변경할까 고민했으나 내부 논의를 통해서 PK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한다. 혹시

대체 종목 생각해 보신 과가 있나? 배드민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장소와 시간이 마땅치 않아 배드민턴도 이야기는 해 볼 예정이지만 아마 PK를 유지할 것 같다. 원래 PK를 빼거나 변경하려고 했던 이유는 3번 규칙인 골키퍼는 남자로 하되 두 손을 뒤로 하고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이다. 남자가 골키퍼를 보는 이유는 여학생들이 골키퍼를 하게 되면 남학생보다 다치기 더 쉬워서였다. 근데 남학생들이 손을 쓰지 않고 막아야 하니 무리하다가 넘어지거나 머리로 막으려고 하다가 머리를 박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서 이것 때문에 빼거나 종목을 바꾸려고 했으나 마땅한 종목이 없어 3번 내용을 수정하고자 해서 넣어줬다. 손을 뒤로 하는 건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뒤로 하지 않지만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팔이나 손으로 공을 막은 경우에 그 공을 득점으로 인정한다든지에 대해 방향성을 물어보고 싶다. 처음부터 손을 뒤로 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손이나 팔로 공을 막지만 않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건 괜찮은가?

- 2) 국문과 체육부장: 괜찮다.
- 3) 인문대 회장: 그러면 손을 뒤로 하거나 하는 것 없이 평상시처럼 서 있되 손이나 팔로 공을 막을 시 득점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
- 4) 인문대 문화국장: 손과 팔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상관 없나?
- 5) 불문과 비대위원장: 몸에 붙어 있더라도 공이 손이나 팔에 닿아 막아지면 무조건 득점 인정하는 게 나올 것 같다.
- 6) 인문대 회장: 그러면 손이나 팔에 공이 닿은 경우 무조건 득점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 와일드카드는 1명으로 유지하는 게 나올 것 같나?
- 7) 불문과 회장: 그렇다.

자. 줄다리기 부분 관련 논의

- 1) 인문대 회장: 줄다리기는 따로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없다고 하시면 이대로 확정하겠다. 괜찮은가?
- 2) 독문과 회장: 괜찮다.

차. 계주 부분 관련 논의

- 1) 인문대 회장: 계주 규칙 3-1번에 1번 주자를 기준으로 7m씩 앞에서 출발한다는 내용 괜찮은가? 인코스 때문에 1번 주자가 제일 들어가기 편해서 거리로 불이익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다.
- 2) 국문과 회장: 괜찮다.
- 3) 인문대 회장: 계주를 할 때 보는 사람은 전부 서서 보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올해는 규칙에 앉아서 관람하는 걸 넣었다. 작년에도 이 규칙이 있었다고는 들었다. 작년에는 다들 앉아서 관람했나?
- 4) 불문과 체육부장: 규칙은 있었으나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 5) 사학과 체육부장: 트랙 안에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될 것 같다.
- 6) 인문대 회장: 트랙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면 해당 규칙은 지켜지지 않으므로 룰북에서 삭제하도록 하겠다.

2. 체전 타임테이블 피드백

가. 논의

- 1) 인문대 회장: 작년에는 체육부장님들이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나왔다고 확인했다. 왜 이때 나오셨는지 알 수 있나?
- 2) 불문과 체육부장: 천막과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모였었다.
- 3) 인문대 부회장: 작년에는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체육부장님들을 일찍 부른 것 같다.
- 4) 인문대 회장: 올해는 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8시 40분까지 과 천막 준비해 주면 될 것 같다. 천막 등 설치, 학과 학생회 집합, 개막식 세팅, 세부 일정 조율을 한 번에 묶어서 8시 40분까지 완료하려고 한다. 그리고 피구 경기는 그대로 농구장에서 하기로 인문대 체전 TF 내에서 논의되었는데 괜찮은가?
- 5) 사학과 회장: 괜찮다.
- 6) 인문대 회장: 앞에 농구 3, 4위전이 딜레이 되면 피구를 족구장에서 하는 건 어떨까? 족구 결승이 피구 결승보다 먼저면 족구 네트를 빼고 족구장에서 피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
- 7) 불문과 체육부장: 좋은 것 같다.
- 8) 사학과 체육부장: 공간의 넓이가 같나?
- 9) 인문대 회장: 아직 실측은 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족구장이 조금 더 좁을 것 같다.
- 10) 사학과 체육부장: 실측해 보고 크기 차이가 크면 농구장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좁아지면 엉켜서 다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측 후에 다시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 11) 인문대 회장: 피구를 농구장에서 진행하기로 하면 농구가 딜레이 될 시 그 뒤에 경기들이 전부 조금씩 미뤄져서 폐막식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 최대한 딜레이 없이 진행해 보려고 할 예정이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미리 양해를 드린다. 우천 시 매뉴얼은 농구나 피구 같은 종목은 비가 오게 되면 스포츠 센터를 사용할 예정이나 축구나 소프트볼 같은 종목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안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진행할 것 같다. 축구나 피구, 농구 같이 미끄러워 안전 위험이 있는 종목은 실내로 이동해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12) 사학과 회장: 이벤트 매치를 원래 이렇게 길게 진행하나?
- 13) 인문대 회장: 이벤트 매치 겸 휴식 시간이라 길게 잡았다. 이벤트 매치는 준비 중이라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다. 최대한 다치지 않고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을 고민 중이다.
- 14) 사학과 회장: 항상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벤트 매치 시간을 줄이는 건 어떤가?
- 15) 인문대 회장: 그것도 고려해 보겠다. 만약 이벤트 매치 시간이 줄어들면 점심시간을 늘릴 것 같다. 경험상 점심시간이 한 시간인데 앞에 경기가 딜레이 되면 점심시간 한 시간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벤트 매치 시

간을 줄이게 되면 뒤에 예정된 경기 시간을 당기는 것보다는 점심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나. 결론

- 1) 각과 회장과 체육부장은 8시 40분 이전에 각과 천막 준비 완료
- 2) 농구 경기 딜레이 시 피구 경기는 족구장과 농구장 사이즈 실측 후에 결정 예정임
- 3) 우천 시 미끄러워 안전 위험이 있는 종목만 실내로 이동해서 진행할 예정임
- 4) 이벤트 매치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점심시간을 늘릴 예정임

3. 체전 천막 위치 및 단체티

가. 천막 위치

- 1) 천막 위치는 단상을 기준으로 왼쪽 끝부터 1번부터 8번까지 번호 붙임
- 2) 천막 위치 선정 결과
 - 가) 1번: 중어중문학과
 - 나) 2번: 국어국문학과
 - 다) 3번: 영어영문학과
 - 라) 4번: 독일언어문학과
 - 마) 5번: 일어일문학과
 - 바) 6번: 사학과
 - 사) 7번: 불어불문학과
 - 아) 8번: 철학과
- 3) 천막 위치 관련 논의
 - 가) 인문대 회장: 가위바위보나 뽑기로 선정하는 건 어떤가? 흡연 부스를 구령대 뒤에 설치할 예정이라 유불리는 어느 위치든지 있을 것 같다.
 - 나) 사학과 회장: 자리마다 번호가 정해져 있나?
 - 다) 인문대 문화국장: 앞 칠판에 그려두겠다.
 - 라) 사학과 회장: 사학과는 4번 자리 원한다.
 - 마) 국문과 회장: 국어국문학과는 1번 원한다.
 - 바) 불문과 비대위원장: 불어불문학과는 6번 원한다.
 - 사) 영문과 회장: 영어영문학과는 3번 자리 원한다.
 - 아) 독문과 회장: 독일언어문학과도 3번 자리 원한다.
 - 자) 중문과 회장: 중어중문학과도 3번 원한다.
 - 차) 불문과 비대위원장: 그러면 자리 고르는 순서를 뽑기로 정하는 건 어떤가?
 - 카) 인문대 회장: 뽑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
 - 타) 사학과 회장: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였나?
 - 파) 인문대 부회장: 작년에는 뽑기로 진행했다.
 - 하) 불문과 체육부장: 그냥 모든 과가 자리 번호 뽑아서 결정하자.
 - 거) 인문대 회장: 만약 뽑았는데 서로 교환 원하시면 하셔도 된다.

나. 단체티

- 1) 현재 희망 색상
 - 가) 인문대학 학생회: 연한 초록색

- 나) 국어국문학과: 연노랑색
- 다) 철학과: 라벤더색
- 라) 중어중문학과: 빨간색
- 마) 불어불문학과: 네이비색
- 바) 독일언어문학과: 샛노란색
- 사) 영어영문학과: 버건디색
- 아) 사학과: 파란색
- 자) 일어일문학과: 검정색

2) 단체티 관련 논의

- 가) 인문대 회장: 색이 비슷한 과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 나) 철학과 체육부장: 철학과는 처음에 파란색을 생각하긴 했었다.
- 다) 인문대 회장: 파란 계열끼리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색 코드나 색상 사진이 있으면 카톡방에 업로드해 달라. 사진 확인 후 협의가 필요하다면 진행하도록 하자.
- 라) 철학과 체육부장: 그러면 철학과는 라벤더색으로 변경하고 싶다.
- 마) 국문과 회장: 연두색과 민트색은 구분이 되나?
- 바) 인문대 문화국장: 두 색은 다른 것 같긴 하다.
- 사) 인문대 회장: 파란 계열 두 색과 붉은 계열 두 색은 땀에 젖으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과끼리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당장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카톡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다.

3) 결론

- 가) 카톡을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

4. 체전 예선 시작 날짜

가. 논의

- 1) 인문대 부회장: 8월 24일이 있는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나?
- 2) 인문대 문화국장: 그러면 며칠까지 진행하나?
- 3) 인문대 부회장: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할 것 같다.
- 4) 사학과 회장: 체육교육과와는 운동장 사용 일정이 안 겹치나?
- 5) 인문대 회장: 체육교육과 운동장 사용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 6) 인문대 부회장: 기숙사 입주가 8월 말이라 그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24일이 있는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괜찮다면 8월 18일이 있는 주부터 시작해도 되나?
- 7) 사학과 회장: 그건 각과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하다. 사실 18일로 정해줘도 정확한 날짜가 안 잡히면 사람을 모으기 어려울 것 같다.
- 8) 인문대 부회장: 그러면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넉넉히 예선전 일정을 잡아도 괜찮나? 상세 일정은 각과에서 조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상세 일정은 각과에서 조율하되 9월 18일까지 모든 예선전이 끝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
- 9) 사학과 체육부장: 풋살대회처럼 두 과가 협의해 날짜를 정하는 건가? 아니면 학생회

에서 이날 예선전을 하라고 날짜를 정해주는 건가?

- 10) 국문과 회장: 참가할 인원 중합 후 카톡방을 만들고 참여 종목을 정해야 하는데 인원 조사 같은 부분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되나?
- 11) 인문대 부회장: 그렇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학생회에서 날짜를 정해주면 일정이 안 맞아 못 나오는 과가 생길 것 같아서 경기를 하는 두 과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12) 사학과 체육부장: 그러면 개강 직후에 바로 예선 경기를 시작하는 건 어떤가? 개강하는 주는 수업도 대부분 OT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선전 진행하기에 어려움도 적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주에 최대한 많은 예선 경기를 하고 남은 경기는 18일까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13) 인문대 부회장: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말하는 건가?
- 14) 사학과 체육부장: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은 어려운가?
- 15) 인문대 부회장: 다른 과는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선전 진행 괜찮은가?
- 16) 불문과 체육부장: 괜찮다.
- 17) 인문대 부회장: 괜찮으시면 이렇게 확정 짓도록 하겠다.

나. 결론

- 1)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선전 진행 예정

5. 체전 예선 조 추첨

가. 조 추첨은 뽑기로 진행

나. 조 추첨 결과

1) 축구

- 가) 독일언어문학과 vs 영어영문학과
나) 철학과 vs 불어불문학과
다) 중어중문학과 vs 일어일문학과
라) 국어국문학과 vs 사학과

2) 농구

- 가) 중어중문학과 vs 철학과
나) 사학과 vs 불어불문학과
다) 일어일문학과 vs 독일언어문학과
라) 국어국문학과 vs 영어영문학과

3) 소프트볼

- 가) 독일언어문학과 vs 일어일문학과
나) 사학과 vs 영어영문학과
다) 중어중문학과 vs 불어불문학과
라) 철학과 vs 국어국문학과

4) 족구

- 가) 불어불문학과 vs 중어중문학과
나) 사학과 vs 독일언어문학과
다) 일어일문학과 vs 영어영문학과
라) 철학과 vs 국어국문학과

5) 피구

- 가) 불어불문학과 vs 국어국문학과
- 나) 독일언어문학과 vs 영어영문학과
- 다) 중어중문학과 vs 철학과
- 라) 일어일문학과 vs 사학과

6) 발야구

- 가) 일어일문학과 vs 영어영문학과
- 나) 국어국문학과 vs 독일언어문학과
- 다) 철학과 vs 불어불문학과
- 라) 사학과 vs 중어중문학과

7) PK

- 가) 불어불문학과 vs 중어중문학과
- 나) 일어일문학과 vs 독일언어문학과
- 다) 철학과 vs 영어영문학과
- 라) 국어국문학과 vs 사학과

8) 줄다리기

- 가) 독일언어문학과 vs 철학과
- 나) 영어영문학과 vs 불어불문학과
- 다) 국어국문학과 vs 중어중문학과
- 라) 일어일문학과 vs 사학과

9) 계주

- 가) 1번 레인부터 순서대로 추첨
- 나) 1번 레인: 철학과
- 다) 2번 레인: 국어국문학과
- 라) 3번 레인: 사학과
- 마) 4번 레인: 중어중문학과
- 바) 5번 레인: 독일언어문학과
- 사) 6번 레인: 영어영문학과
- 아) 7번 레인: 불어불문학과
- 자) 8번 레인: 일어일문학과

다. 논의

- 1) 인문대 회장: 과마다 한 종목씩 맡아서 뽑기를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인문대학 학
생회에서 모든 종목 뽑기를 진행하는 게 나은가?
- 2) 사학과 체육부장: 인문대 학생회에서 모든 종목 뽑기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
- 3) 인문대 회장: 만약 PK를 대체 종목으로 변경하게 되더라도 대진표는 PK 대진표로 진
행할 예정이다.

4. 기타 안건

1. 체전 심판

가. 각 과에서 체육부장들은 축구 심판 부족하지 않게 많은 도움 부탁

2. 인문대학 3호관 1층 사물함

- 가. 오래된 사물함은 철거할 예정이므로 내용물 전부 비워주기를 바람
- 나. 잠겨 있는 사물함은 강제 개방해도 무관함

3. 7월 26일 인문대학 정전

- 가. 6시부터 18시까지 정전 예정
- 나. 정전되는 시간에는 인문대학 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각 과에 공지 바람

4. 여학우 휴게실

- 가. 현재 여학우 휴게실 새로 도배 중
- 나. 도배 마무리되면 여학우 휴게실 사용 가능